

[사]정책네트워크 **내일** 보도자료

<즉시 보도 가능>

2016. 9. 28(수)

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9(도화동 51-1) 성우빌딩 707호 / ☎ 02-704-0518 / pnt@policynetwork.or.kr

정책네트워크내일 2기 임원 취임식과 회원의밤

- 경제, 교육, 통일, 안보 등 연구포럼의 정책대안 생산과 회원사업에 박차 가하기로

○ (사)정책네트워크내일(이사장 최상용)은 9월 28일(수) 오후 6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2기 출범식 및 회원의밤 행사를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. 지난 8월 16일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장에 최상용 전 주일대사이며 고려대 명예교수를 연구소장에,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를, 그리고 이사에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,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,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, 정연호 변호사,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교수를 선출했고, 조광희 변호사를 감사로 선출한 바 있다.

○ 정책네트워크내일은 2기 공식 출범을 계기로 연구분야는 연구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포럼, 교육포럼, 통일포럼, 안보포럼, 육아포럼 등 각 연구포럼에 최고전문가들을 영입하고 활성화하여 정책대안 생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. 또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된다는 모토 아래 정책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정책제안을 활성화하고, 다양한 회원모임 등 회원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.

○ 이를 위해 정책네트워크내일은 경제분야(박원암), 교육분야(조영달), 육아정책(이옥), 통일외교(최상용, 백학순), 안보분야(이성출) 등 각 정책분야의 최고전문가들로 연구포럼을 활성화하고 있다. 또한 박인복, 박왕규, 김태일 등 부소장단을 중심으로 홍보, 기획, 회원조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.

○ 최상용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“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냉전의 틀을 넘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. 새정치는 바로 이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정치이고, 정책네트워크내일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에 담긴 국민의 간절한 요청을 정책으로 담아낼 것입니다.” 이라고 말했다. 또한 박원암 연구소장은 “연구포럼 활동과 정책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일

이 되도록 하겠다.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길이 되고 희망이 된다” 고 말했다.

○ 이날 행사에는 진심캠프 출신인사인 조광희(비서실장), 정기남(비서실 부실장), 박인복(국정자문지원실장), 박왕규(대외협력부실장), 강동호(대외협력팀장), 오창훈(대외협력위원), 김형민(기획실장), 김경록(기획팀장), 신현호(정책본부 간사), 김성대(공보팀장), 김태일(노동정치연대포럼), 이수봉(노동정치연대포럼), 강승규(노동정치연대포럼) 등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.

○ 정책네트워크내일 고문인 안철수의원은 2부행사에서 모두발언하고 회원들과 격의 없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. 끝.